

호랑이, 5위 굳히기 돌입... 내친김에 4위까지



KIA, 화끈한 방망이로 '천적' 두산에 워닝시리즈

2.5게임차 SK와 안방 격돌... 전반기 마지막 총력전

■ 2016 프로야구 순위 (11일 현재)

순위	팀명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연속
1	두산	54	1	25	0.684	0.0	1패
2	NC	45	2	27	0.625	5.5	2패
3	넥센	45	1	36	0.556	10.0	2승
4	SK	41	0	41	0.500	14.5	2패
5	KIA	37	1	42	0.468	17.0	1승
5	롯데	37	0	42	0.468	17.0	1패
7	LG	33	1	43	0.434	19.5	1승
8	한화	32	3	43	0.427	20.0	4승
9	kt	32	2	44	0.421	20.5	2승
10	삼성	33	1	46	0.418	21.0	2패

'호랑이 군단'이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5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KIA 타이거즈에게는 뜨거웠던 지난 한 주였다. 고척에서의 싸움에 패로 4연패의 침묵에 빠졌던 KIA는 지난 5일 우천취소로 한숨을 고른 뒤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했다.

양현종-헥터를 앞세워 kt와의 원정경기에서 2승을 담은 KIA는 주말에는 '난적' 두산 안방에서 워닝 시리즈를 가져왔다. 두산을 상대로 설욕전에 나선 흥건희가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생애 첫 선발승을 기록하면서 뜨거웠던 질주에 마침표를 찍었다. 보크 오심만 없었더라면 5전 전승까지 가능했던 분위기였다.

승률을 높인 KIA는 롯데 자이언츠와 공동 5위에 자리하고 있다. 올스타브레이크에 앞서 안방에서 마지막 시리즈를 치르게 된 KIA의 상대는 4위에 자리하고 있는 SK 와이번스다. 2.5경기차 밖에 머물고 있는 SK와의 격차를 좁히고, 5강 굳히기에 들어가는 게 KIA의 우선 목표다. 스위치로 시리즈를 마무리 한다면 4위까지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분위기는 좋다. 투·타의 힘이 좋다. 일단 양현종을 시작으로 헥터-지크가 순서대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서게 된다. 좌완 심동섭과 우완 한승혁의 동반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던 불펜에 새로운 전력도 들어섰다.

심동섭이 계속된 부진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지만 옆구리 부상에서 빠졌던 김윤동이 안정된 모습으로 복귀전을 치르면서 불펜에 힘을 더하게 됐다. 임창용도 우여곡절 2패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마무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 타선의 힘이 좋다. 1번 김효령부터 9번 강한울까지 짜임새가 잘 갖춰진 고정 라인업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5경기에서 KIA 타자들은 0.351의 팀타율과 함께 10개의 홈런을 만들어냈다.

'3할 타자' 김효령은 주말 잠실 담장을 두 번이나 넘기면서 파워히터의 면모까지 보여줬다. 물 오른 수비 실력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부상에서 탈출한 신중길도 5경기에서 13타수 8안타(타율 0.615)의 맹타를 휘두르며 김효령과 막강 테이볼 세터진을 구성했다. 9번 강한울은 10일 4안타 경기를 펼치는 등 최근 5경기에서 20타수 9안타, 0.450의 타율을 기록했다.

시원한 홈런도 이어지고 있다. 필이 지난 8일 연타석 홈런으로 두산전 연패 탈출을 이끄는 등 3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타선의 '효자'로 돌아왔다. 서동욱도 10일 홈런을 기록하는 등 '거포군단'으로의 변신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범호, 백용환도 지난 주 손맛을 봤고 김주찬·나지완·이흥구 등도 언제든지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한방 있는 자원들이다.

KIA가 가장 강력한 선발 3인방과 묵직한 타자들을 앞세워 SK를 상대로 5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한편 올 시즌 기록 행진을 펼치고 있는 이범호는 전반기 종료에 앞서 2600루타 달성을 노린다. 앞으로 5루타가 더해지면 이범호는 프로야구 통산 21번째 2600루타 기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퓨처스 25일 군산경기

KIA 타이거즈 퓨처스 선수단이 군산에서 '먼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경기를 치른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10일 7월 TV 중계 편성을 확정했다. KIA는 오는 25일 오후 7시 군산구장에서 고양 다이노스와 '먼데이 나이트 베이스볼'로 경기를 갖는다. 이 경기는 SPOTV에서 생중계 한다.

이번 경기는 3년 만에 군산에서 열리는 퓨처스 리그 경기로 KIA는 27일 까지 군산 원정으로 3연전을 치른다. KBO는 앞으로 연고도시 외 지역과 KBO 리그 경기가 열리지 않는 중소도시의 퓨처스 리그 경기 개최를 확대, 다양한 지역의 팬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BO 퓨처스 리그 중계는 KBO 공식 앱과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날두 눈물에 포르투갈이 깨어났다

유로 2016 우승... 사상 첫 메이저 대회 패권



호날두 전반 7분 무릎 부상

투혼 발휘하다 눈물의 교체

선수들 결속시킨 전화위복

연장전서 프랑스 1-0 꺾어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가 한 달의 열전을 마치고 포르투갈의 역대 첫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포르투갈은 11일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 2016 결승전에서 '개최국' 프랑스를 120분 연장 혈투 끝에 1-0으로 물리치고 '앙리 들로네 컵'의 주인공이 됐다. 포르투갈은 자국에서 열렸던 유로 2004 결승에서 그리스에 0-1로 패한 아쉬움을 12년 만에 씻어내며 유로 대회 첫 우승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본선 진출국 성적 예측 보고서에서 포르투갈의 우승 확률은 8%에 불과했다. 역우승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의 '원맨팀'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르투갈은 조별리그 F조에서 3무에 그쳐 조 3위로 16강에 턱걸이하며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16강 체제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이었지만 24강 체제의 혜택을 톡톡히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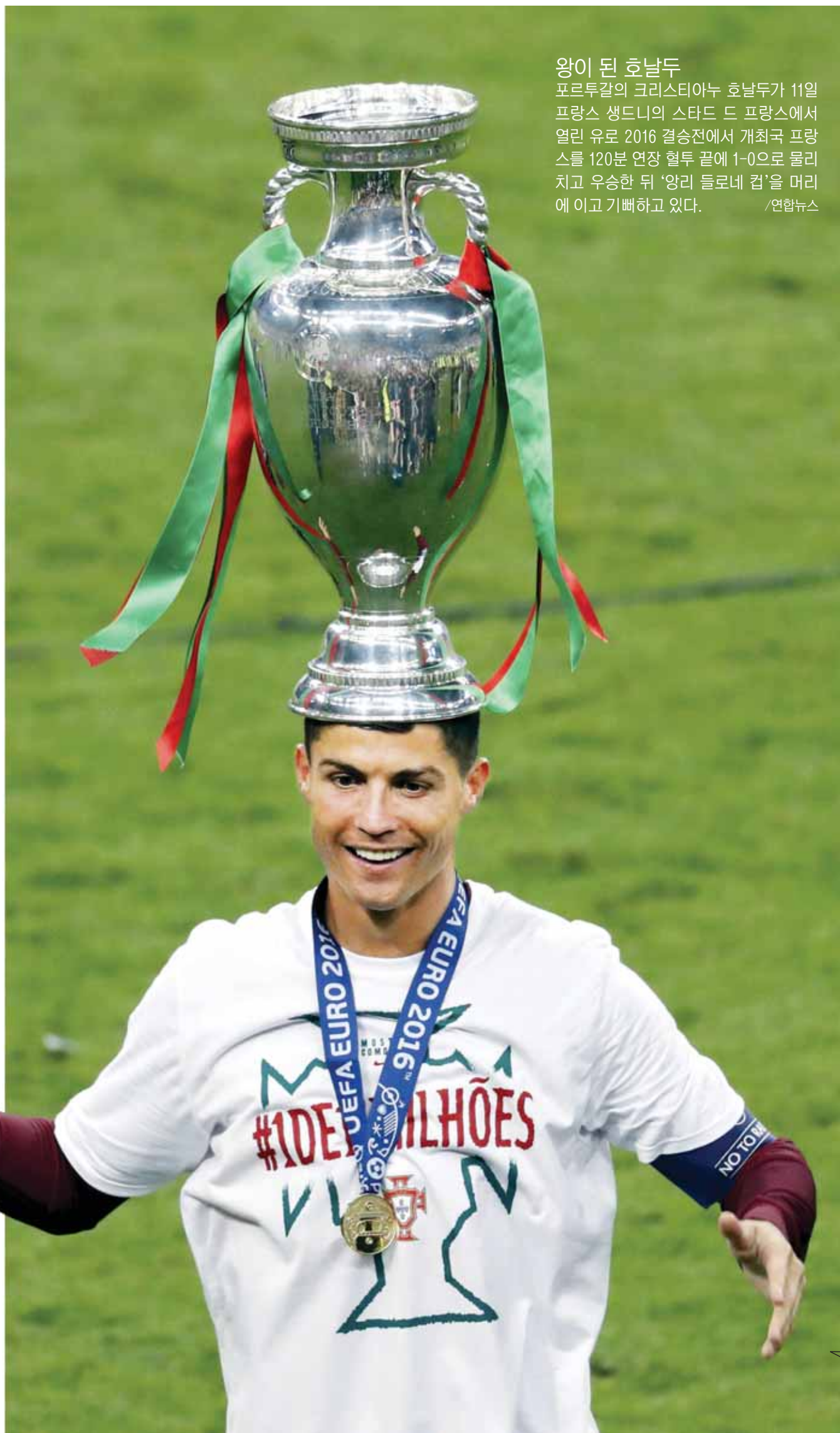
포르투갈은 크로아티아와 16강에서 연장전 끝에 1-0으로 승리했고, 폴란드와 8강에서도 승부차기로 준결승에 오르는 피를 말리는 혈투를 이어갔다. 프랑스와 결승에서는 호날두가 전반 25분 무릎부상 때문에 교체되는 아찔한 상황을 맞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그라운드를 나선 호날두의 모습이 선수들에게 투지를 심어주는

전화위복이 돼 우승 트로피까지 차지하는 기적을 연출했다.

유로 2016의 또 다른 즐거움은 '언더독의 반란'이었다. 24강 체제에 바뀌면서 이전에는 본선에 명함도 내밀지 못했던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5개국도 첫 출전 기회를 잡았다. 참가국이 늘어날 때만 해도 대회 수준이 하향 평준화 될 것이라며 팬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하지만 알바니아를 제외한 4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를 넘어 8강(아이슬란드)과 4강(웨일스)까지 진출했다. 아이슬란드는 대회 기간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됐다. 웨일스 역시 가레스 베일(레알 마드리드), 애런 램지(아스널), 벤 데이비스(토트넘) 등을 앞세워 4강까지 나서 '언더독(우승 확률이 낮은 팀)의 반란'의 핵심이 됐다.

프랑스를 빼면 독일, 잉글랜드, 스페인 등 유력한 우승 후보들이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토너먼트 대진도 쉽지 않았다.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16강에서 맞붙었고, 스페인을 물리치고 8강에 오른 이탈리아는 독일과 4강을 놓고 대결했다. 독일은 또 준결승에서 프랑스와 상대했다. 16강부터 '미리 보는 결승전'이 잇달아 열렸고, 포르투갈은 우승 후보들이 차례로 탈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결승전을 치를 수 있었다.

/연합뉴스



왕이 된 호날두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1일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 2016 결승전에서 개최국 프랑스를 120분 연장 혈투 끝에 1-0으로 물리치고 우승한 뒤 '앙리 들로네 컵'을 머리에 이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꼴찌 추락

창단 첫 10위

'왕조'를 구축했던 삼성 라이온즈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10일 한화와의 방문 경기에서 6-10으로 패하며 처음으로 10위로 내려앉았다. 정규시즌 10경기 이상을 치른 뒤 꼴찌위를 기록한 건 8개 구단 체제였던 2007년 5월 5일 이후 무려 9년 2개월 만이다. 당시 삼성은 24경기에서 10승 1무 13패로 8위로 떨어졌다.

삼성이 10경기 이상 치른 상황에서 최하위로 떨어진 시즌은 앞서 3년뿐이었다. 1995년과 2004년에는 37경기를 치렀을 때, 2007년에는 5월 초에 꼴찌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80경기(33승 1무 46패)를 치른 상황에서 10위로 떨어졌다.

삼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정규시즌을 제패했다. 2011~2014년까지는 KBO 리그에서 전무한 4년 연속 통합우승 기록을 세웠다. 사실 우승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전력 누수는 계속됐다. 2013년 시즌 종료 뒤 마무리 오승환이 일본에 진출했고, 이듬해에는 좌완 불펜 권혁과 우완 선발 배영수(한화)가 FA(자유계약 선수)로 팀을 떠났다. 주전 3루수 박성민도 지난 겨울 NC로 떠났다. 대체 자원을 찾지 못, 너무 많은 선수가 팀을 떠났고 외국인 선수도 통하지 않았다. 최근 내야수 아들 발디리스가 1군에 복귀했지만, 56일 동안이나 1군을 비웠다. 투수 앨런 웹스터와 아놀드 레온은 각각 재할군과 2군에 있었다. 1선발 차우찬, 5선발 장원삼, 주전 우익수 박한이, 유격수 김상수, 중견수 배영섭 등은 부상을 경험했다. 차세대 스타 구자욱도 5월 26일 KIA전 이후 1군에서 자취를 감췄다.

아직 절망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다. 삼성과 공동 5위 KIA, 롯데와의 격차는 4게임이다. 하지만 부상 선수 복귀와 '무기력형 탈출' 등 많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연합뉴스

유럽 축구선수권대회 역대 우승팀

연도	우승	준우승	경기결과
1960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2-1
1964	스페인	스페인	2-1
1968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2-0
1972	독일	소련	3-0
1976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2-2(승부차기 5-3)
1980	독일	벨기에	2-1
1984	프랑스	스페인	2-0
1988	네덜란드	소련	2-0
1992	덴마크	독일	2-0
1996	독일	체코	2-1
2000	프랑스	이탈리아	2-1(골든골)
2004	그리스	포르투갈	1-0
2008	스페인	독일	1-0
2012	스페인	이탈리아	4-0
2016	포르투갈	프랑스	1-0(연장 후반)

자료/UEFA

연합뉴스